

# 3개 대회 병행에 역부족이었던 '얇은 선수층'

##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3>

광주FC가 지난해 K리그1 3위와 아시아 무대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각각의 포지션에서 큰 공백 없이 자리를 지켜준 주축 선수들의 존재감이 컸다. 두현석과 자시르 아사니, 안영규, 이순민, 이희균, 정호연, 허을 등 15명의 선수가 시즌의 3분의 2인 26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였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6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가브리엘 티그랑과 김경민, 김진호, 문민서, 이근희, 정호연, 최경록, 허을 등 11명으로 줄었다. 선발과 교체까지 한 경기에 최대 16명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라인업의 변동 폭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타격이 컸던 부분은 수비다. 광주 FC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순민과 티모 레츠셰르트, 아론 칼버 등을 떠나보냈다. 이순민은 35경기, 티모는 27경기를 소화했고 아론 역시 부상 공백에도 20경기를 뛰며 힘을 보탠 주축 수비 자원이었다.

이순민의 존재감은 대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정효 감독에게 이순민과 정호연은 부동의 중원 조합이었다. 이 감독은 이순민에게 수비, 정호연에게 공격 역할을 부여했고 박한빈과 이강현이 뒤를 받쳤다.

특히 이순민은 지난해 수비형 미드필더 뿐만 아니라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팔색조로 거듭났다. 수비

이순민·아론·티모 등 출혈 발생 예산 문제로 유망주 대거 영입 수비형 미드필더 충원에 어려움 전반적 경기력 저하 문제 직결

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옵션이었던 셈이다.

또 최근 K리그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 자원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광주는 김진호로 측면 수비, 변준수와 알렉스 포포비치, 브루노 올리베이라로 중앙 수비를 보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끝내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지 못했다.

광주FC의 재정이 즉시 전력감을 수혈할 만큼 풍족하지 못한 부분도 발목을 잡았다. 이 감독 체제에서 두 시즌 연속 호성적을 내면서 선수단 연봉이 인상된 상황 이었고, K리그 연봉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으로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에 예산을 집중하는 대신 유망 자원에 분산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도 모두 이 기조에 해당했고 즉시 전력감이라고 할만한 선수는 고교 졸업 직후 해외 진출로 K리그 데뷔 첫해 최저 연봉을 받아야 하는 최경록뿐이었다.

유망 자원을 대거 영입하며 전체 선수단 규모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39명(종료 시점 36명)으로 확대됐지만 주축 선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



광주FC 정호연(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둔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는 자원들이 마땅치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수가 발생했을 때 포지션 변경으로 활로를 찾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허을이 최전방 공격수에서 중앙 수비로, 정호연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최경록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조성권과 김경재가 중앙 수비에서 측면 수비로 가는 등 여러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을 소화했다.

이런 과정들은 결과로도 나타났다. 지

난해 47득점과 35실점을 기록하며 득실 마진 +12를 기록했던 광주FC는 올해 42득점과 49실점으로 저조했고, 득실 마진은 -7에 그쳤다. 승점 역시 3위에서 9위, 승점도 59점에서 47점으로 하락했다.

1부리그 잔류에는 성공해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을 갖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K리그와 코리아컵,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병행해야 하는 선수단의 과부하는 쉽게 해결되지 못

할 전망이다.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올해보다 연봉 총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불가피하다.

연봉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수단 규모도 더 줄여야 하는데 3개 대회를 병행하기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광주FC가 확인한 현실이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드래곤즈, 김현석 감독과 승격 재도전

### "도민들 염원 이뤄내겠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김현석(사진) 감독과 승격 재도전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올 시즌 충남아산FC를 K리그2 준우승으로 이끈 김 감독의 지휘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시즌 팀의 1부리그 승격을 이끌 적임자로 내세웠다.

전남드래곤즈는 제16대 사령탑으로 김현석 전 충남아산FC 감독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시절 울산현대호랑이(현 울산 HD FC)의 원클럽으로 활약한 김 감독은 프로축구 통산 373경기에 출전해 111득점과 54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1996시즌 MVP와 1997시즌 득점



왕을 비롯해 베스트 11을 여섯 차례 수상하는 등 K리그 레전드로 평가받는다.

은퇴 직후 울산현대 호랑이에서 2군 코치와 코치, 수석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수업을 받은 그는 2014년 모교인 강릉중앙고(전 강릉농고) 지휘봉을 잡으며 본격적인 감독의 길에 들어서 2018년 울산대를 거쳐 2022년 충남아산 FC 사무국장을 맡으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박동혁 감독이 사퇴하며 다시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 '광주 출신' 손현호, 세계역도선수권 용상 동메달

### 81kg급... 인상 7위·합계 4위

송정중-정광고 출신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역도 재목으로 꼽히는 손현호(국군체육부대·사진)가 2024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손현호는 11일(한국 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81kg급에서 인상 155kg과 용상 197kg을 들어 올리며 합계 352kg을 기록했다.

세계선수권은 합계로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과 달리 인상과 용상, 합계에 대한 순위를 나눠 각각 메달이 주어진다. 손



현호는 용상에서 리칭송(북한·205kg)과 알렉세이 추르킨(카자흐스탄·204kg)에 이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차지했고 인상과 합계에서는 각각 7위와 4위에 자리 잡았다.

이로써 손현호는 이번 대회 한국 역도 국가대표팀의 두 번째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전날 열린 남자 73kg급에서 이상연(수원시청)이 용상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지난 10일(한국 시간)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24-25로 역전패하며 준우승에 그친 뒤 시상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핸드볼연맹 제공

## 한국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7연패 무산

### 결승서 일본에 24-25 역전패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7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이계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한국 시간)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24-25로 역전패했다.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19-29로 완패하며 은메달에 그쳤고, 이번 대회에서 설욕을 노렸으나 준우승에 머무르며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출전권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이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서지 못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은 20회 대회 중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결승에 올랐고, 16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경기 시작과 함께 우빛나와 김보은의 득점으로 앞서나갔다. 전지연과 정지인도 득점에 가세하며 전반 16분11초까지 8-5 리드를 잡은 한국은 약 4분간 4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8-9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은 곧바로 서아루와 이연경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10-9로 재역전을 이뤘고 김민서와 전지연도 득점을 보태며 12-9, 3점 차 리드를 가져오며 전반을 마쳤다.

한국은 후반 시작 2분9초 만에 세 골을

내리 내주며 12-12 동점을 허용했다. 김민서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다시 실점했고, 강은서와 이연경이 득점하며 격차를 벌리려 했으나 3연속 실점하며 9분40초에 역전을 허용했다.

동점과 일본의 리드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 한국은 후반 중반 극적인 재역전에 성공하며 우승의 불씨를 살렸다. 17-18에서 우빛나와 정지인이 득점을 터트리며 19-18로 앞섰다.

하지만 후반 막판 20-19에서 3연속 실점이 나오며 20-22로 다시 흐름이 뒤집혔다. 한국은 역전에 실패했다. 약 7분간 득점과 실점을 반복한 뒤 끝내 24-25, 한 점 차로 경기가 종료됐다.

한규빈 기자